일반논문

전기화 |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김문희 |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

황수연 | 18세기 어머니 행장(先妣行狀) 연구 : 母子의 인정 행위를 중심으로

정지영 | 조선후기, 죽은 딸과 누이의 '총명함'을 다룬 사대부의 제문

: 칭송, 탄식, 그리고 경계 설정하기

김양선 |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

: 박경리의 『파시(波市)』를 중심으로

김은하 | 개발의 문화사와 부양자/남성성 획득의 드라마

: 이문구의『장한몽長恨夢』(1973)을 대상으로

이혜원 |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이채원 |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서사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전기화**

차례

1. 서론
2. 여성의 효 수행에 관한 규범적 담론
3. 진양공주의 효 수행 양상과 그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진양공주라는 여성인물의 효 수행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교의 규범적 담론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효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진양공주의 경우와 견주어 살핀 뒤,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의 효 수행이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차례로 짚어보고자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여성의 효에 관한 규범적 담론을 분석한 바, 여성은 혼인을 기점으로 효의 수행 대상을 친부모에게서 시부모에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 규범의 핵심임을 도출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혼인 이후에도 친모에 관하여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는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3장에서는 진양공주의 효 수행의

* 이 연구는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NRF-2016H1A2A1909231). 서울대학교 2017-1학기 이연승 선생님의 한국유교연구 수업 발표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것임을 밝힌다.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의 날카롭고 애정 어린 조언은 이 글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한석 학형의 조언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가 수행하는 '효'가 어머니를 향한 딸의 효성의 발현이나 규범적인 덕목의 준수가 아닌,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유되는 일종의 정치적 자원임을 보였다. 나아가 『유씨삼대록』이 진양공주의 효 수행으로 인해 생긴 균열을 봉합하면서도 진양공주를 미화하는 서사임을 보임으로써, 이 인물의 유교적 덕목 수행이 저항과 복종의 틀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조선후기 여성, 효, 효녀, 효부, 『유씨삼대록』, 재현

1. 서론

조선후기에 창작된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들 가운데 효녀형 인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심청이다. 봉사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심청은 혼인 이전에 친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발휘한 것이므로 유교 규범에서 권장되는 덕목을 수행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교의 규범에 따르면 여성들은 혼인 이후에는 친정부모가 아닌 시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요구받았는데, 만약 혼인 이후에도 친정부모에 대해 효를 수행하는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이 존재한다면 그 인물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18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장편소설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진양공주의 효 수행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유씨삼대록』에 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진양공주라는 인물에 주목한 연구 또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양공주의 효 수행의 양상과 그 의미에 천착한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구 가운데 진양공주에 관한 의미 있는 주목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박일용[1]의 연

1)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古典文學硏究』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87-220쪽.

구와 한길연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3) 우선 박일용은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벌열적 세계관을,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여성주의적 세계관을 추출한 위에서, 이 두 세계관이 교합되면서 작품의 구성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다. 교합의 과정에서는 여성인물이 부각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진양공주라는 인물이 극단적으로 미화되고 있다면서 이 작품을 "진양공주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한길연은 이 작품에 여러 인물들의 죽음이 전면화 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진양공주의 요절이 작품 중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예고되면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진양공주는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살아남아 가문의 존립을 보장하며, 그녀의 죽음은 권력을 창출하는 기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진양공주가 서사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나, 두 연구에서는 진양공주에 대한 분석이 이 인물의 시가(媤家)인 유씨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히 진양공주가 유씨 가문의 내적 평안과 외적 번영에 기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방향 속에서는 『유씨삼대록』 내에서 진양공주가 보여주는 복합적인 면모, 예컨대 진양공주가 시가인 유씨 가문과 친정인 왕실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였다. 특히 진양공주의 요절(夭折)이 친모인 태후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던 바, 친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친모의 죽음에 뒤이어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하는 효의 수행 주체로서의 진양공주 형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4)

---

2)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韓國文化』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1-30쪽.

3) 이외에도 진양공주의 공주 신분에 주목하여 공주형 인물들과 비교를 시도하거나, 남편 유세형과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유씨 가문 내 다른 부부 및 여성인물들과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과의 비교, 혹은 작품 내 여러 인물들과 비교의 방법론을 택한 결과 『유씨삼대록』 내에서 진양공주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비중에 비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때 본고의 분석은 효녀형 인물군에 진양공주라는 사례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서고자 한다. 실제로도 『유씨삼대록』에 나타나는 진양공주의 효 수행은 단순히 친어머니를 향한 딸의 지극한 효성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는 여성인물이 친정을 벗어나 시가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친정과 맺고 있었던 유대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연관된다.[5] 요컨대 진양공주의 효 수행이 지니는 문제적 성격은 조선후기 고전소설에서 일종의 '전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친영(親迎)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6] 작품에서 진양공주가 친모에 대해 수행하는 효는 진양공주가 시가 내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부각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인물이 시가와 친정 사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해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

4) 장시광은 전작 『유효공선행록』과 달리 『유씨삼대록』에는 효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본고는 『유씨삼대록』이 효 이데올로기에 관한 전작의 여러 설정들을 역전한 서사라고 판단한다. 또한 장시광은 진양공주의 죽음을 수난이 축적된 결과로서 진양공주가 선택한 "자결"로 보거나, 진양공주의 입궐을 "출거나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등, 『유씨삼대록』을 "전형적인 가부장제적 시각이 담긴" 서사로서 일관되게 해석하였는데, 이후 논의에서 드러나겠지만 본고는 상당부분에서 그 시각을 달리한다(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5) 본고와 연구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효의식을 비교분석하며 한글장편소설이 보수적이라는 편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작품들 간의 차이를 제시한 이지하의 연구 또한 주요하게 참고하였다(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71-199쪽).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인물이 친정부모에 대해 보이는 효의식을 "효의 보편성"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본고는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사례를 통해 여성인물이 친정부모에게 효를 수행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효과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드러냄으로써 효 수행이 포괄하는 다양한 행동양상들을 살피고자 한다.

6) 친영은 실상 조선에는 19세기까지도 정착되지 못했으나, 소설에서는 17세기부터 서사 내에 전제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 참조.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東洋古典硏究』 25, 東洋古典學會, 2006, 285-288쪽;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133-173쪽; 권내현, 「조선후기 부계 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보』 62, 고려사학회, 2016, 247-268쪽.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위에서, 본고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규범적인 담론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효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진양공주의 효 수행 양상과 견주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친부모를 향한 효와 시부모를 향한 효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유포되는 담론 속에서도 친부모에 대한 효를 관철시키는 여성인물이 존재한다면 이 사례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둘째,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가 효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다른 소설 속 여성인물들과 견주어 살펴본다. 친모에 대한 효 수행은 친정과의 유대 정도, 시가 내에서의 자율성 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바,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의 효 수행의 재현 방식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효'라는 미명이 포괄하는 다양한 행동양상과 그 동기 등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2. 여성의 효 수행에 관한 규범적 담론

『소학』의 「명부자지친」 조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와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를 병렬적으로 논한다. 관례를 치르지 않았을 때에는 남녀 모두 친부모를 섬기는 것이 동일하지만, 관례를 치른 뒤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일생에 걸쳐 일관되게 친부모에게만 효를 수행하면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을 기점으로 친부모를 향하던 효의 방향을 시부모에게로 옮겨야 한다.

세종 대에 초간된 『삼강행실도』에서는 『소학』에서 제시된 규범의 실천 양상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전시되고 있다. 『삼강행실도』에 실린 110명의 효자 가운데에 여성은 총 16명인데, 효녀(孝女)로서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효를 다한 경우와 효부(孝婦)로서 시부모에 대한 효를 극진히 한 경우로 유형이 갈리며 각각 8명으로 그 수가 일치한다. 여기에서는 기혼 여성이 자신의 친정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여성

이 효를 수행하는 대상이 혼인 이후에는 친부모에서 시부모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인상을 남김으로써 친부모를 향한 효와 시부모를 향한 효가 병행될 수는 없는가에 관한 질문이 묵인되고 있다.

이렇듯『삼강행실도』내에서는 여성이 혼인 이후에 효의 수행 대상을 바꾸는 것이 자연화 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규범적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성종 대에 소혜왕후에 의해 편찬된『내훈』의 경우 여성들을 대상독자로 상정하며 편찬되었으며, 여성의 효에 관한 규범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내훈』의「효친장」의 조목 대부분은『소학』에 출전을 두고 있는데, 아들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도리를 거론할 따름이다.[7] 그러나『소학』을 출전으로 하지 않는 제6조목의 경우에는 며느리의 도리에 한정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女敎에 云호ᄃᆡ, 舅姑ㅣ 娶婦ᄂᆞᆫ 在能孝之니 苟不能孝ㅣ면 娶汝何爲리오. 爲之婦者ㅣ 夙夜祗畏ᄒᆞ야 惟恐一毫ㅣ나 稍違其意니라. 舅姑之尊이 其高ㅣ 猶天ᄒᆞ니 必敬必恭ᄒᆞ야 毋依其賢이오 倘有笞詈라도 悅豫而受ᄒᆞ라. (…) 但當曲從ᄒᆞ야 孝敬을 益力이니라. 或有指使ㅣ어든 聞命卽行이니 雖甚勞勤나 豈敢自寧이리오. 安則致養ᄒᆞ야 唯恐其餒ᄒᆞ고 病則致憂ᄒᆞ야 衣不解帶ᄒᆞ라. 後人이 則傚ᄒᆞ야 亦如汝爲ᄒᆞ리니 身敎而從이니 愼之戒之어다.[8]

위 조목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태도에 관해 설파하고 있으며, 그

---

7)「효친장」의 경우 총 16개의 조목 가운데 14개의 조목을『소학』에서 원용하고 있다. 나머지 두 조목 가운데에서도 제 9조목의 경우,『소학집주』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소학집성』에서는 확인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소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혜왕후, 이경하 주해,『내훈』, 한길사, 2011, 95-134쪽).

8)「효친장」제 6조목에 대하여『내훈』에서는 그 출전을『여교』라고 밝혔는데, 이경하에 따르면『내훈』에서 출전을『여교』라고 밝힌 것의 대부분은 반소의『여계』와 일치하지만, 이 조목의 경우에는『여계』에서 그 출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이경하, 위의 책, 106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내훈』의 원문은 이경하의 주해서에 인용된 원문을 따른다.

내용은 시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집약된다. 혼인 이후 여성에게는 시부모를 하늘같이 섬겨 매질이나 꾸지람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며 오로지 스스로를 굽혀야 한다는 규범이 부여된다. 관련하여 남편의 마음뿐 아니라 시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시부모의 말에 시비(是非)나 곡직(曲直)을 따지지 않고 곡진히 따라야 한다는 「부부장」의 제 1조목 또한 같은 맥락에 놓인다.[9]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효성에 대하여 나름의 보상체계 또한 『내훈』의 논리 안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효친장」 제 11조목에서는,[10] 아들이 아내를 마땅하게 여기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하며, 반대로 아들이 아내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부모가 잘 섬긴다고 인정하면 죽을 때까지 부부로서의 예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시부모에 대한 효 수행의 의무는, 여성이 시가라는 공간 내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남편의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는 「혼례장」 제 8조목에서 부인을 내쫓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 가운데 부모의 삼년상을 지낸 경우가 포함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들은, '여성이 시가 내에 스스로를 위치시켜야만 하며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에 딸을 시집을 보낼 때 반드시 나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혼례장」 제 6조목은 심상하지 않다.

> 嫁女호ᄃᆡ 必須勝吾家者ㅣ니 勝吾家則女之事人이 必欽必戒ᄒᆞ리라. 娶婦호ᄃᆡ 必須不若吾家者ㅣ니 不若吾家則婦之事舅姑ㅣ 必執婦道ᄒᆞ리라.[11]

---

9) 위의 책, 164-165쪽.
10) 위의 책, 115쪽.
11) 위의 책, 148쪽.

여성이 친정보다 우월한 시가에 시집을 가야만, 반대로 남성 쪽에서는 보다 열등한 집안의 여성이 시집을 와야만 시부모를 공경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서술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시집살이가 특정한 '조건들' 위에서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이 친정보다 열등한 집안에 시집을 갈 경우, 스스로를 굽히면서라도 시가 내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내훈』의 조목들은, 여성의 시부모에 대한 효를 자연스럽고도 무조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삼강행실도』와 달리, 혼인 이후 여성이 시부모에게 효성을 실천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친영제의 정착 시도와 더불어 사대부 남성들을 중심으로 부덕(婦德)에 관한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시도가 강화되었다. 그 시도의 구체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규훈서에서는 여성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주요하게 다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우암선생계녀서』[12]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 조목인 「시부모 섬기는 도리」[13]에서 송시열은 시부모가 친정부모보다 중요한 줄 모르는 시속 부인들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시부모 섬기기를 친정부모 섬기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한다는 당위를 천명한다. 이는 여성의 효가 향하는 대상을 친정부모와 시부모로 나누고 이 둘을 비교하면서 친정부

12) 이 글은 송시열이 자신의 장녀에게 써준 글이나, 한 가문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며 후대 사대부들의 규훈서 작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홍인숙,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尤庵 宋時烈」, 『동양고전연구』 18, 동양고전학회, 2003, 137-138쪽).

13) "세상(世上) 부인(婦人)이 (…) 지아비 부모는 제 부모보다 더 즁한 쥴 모르고 제 부모 ᄉᆞᄉᆞ(私事) 편지를 시부모 알까ᄒᆞ니, 그러할 ᄲᅮᆫ딘 예문(禮文)의 엇지 제 부모 상복(喪服)을 긔연(朞年)이요 시부모 상복은 숨년을 ᄒᆞ라 ᄒᆞ엿시리요. 싀부모 셤기기를 제 부모보다 더 즁이 할 거시니, 일동일졍(一動一靜)과 일언일사(一言一事)를 부ᄃᆡ 무심이 말고 극진이 셤기라"(송시열, 『우암션싱계녀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한古朝25-39, 3-4쪽).

모에 대한 효성을 시부모에게로 옮겨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여성을 효녀에서 효부로 전환시켜야한다는 문제의식은 18세기 규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이 작성한 「한씨부훈」의 제 2장에서는 부모와 시부모를 모시는 법에 관해 논하는데, 한원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실상 며느리가 시부모를 친부모와 나란히 여기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며느리가 시부모의 옳은 마음을 믿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4)

요컨대 여성들은 규훈서를 통해 친부모와 시부모 모두에게 효를 행할 것을 요구받는 대신, 효의 수행 대상을 시부모로 전환하여 시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았다. 여성의 효성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친부모 쪽으로 편향된 효성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부모를 향한 효성만을 강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담론적 시도들은 효의 수행 대상을 친부모에서 시부모에게로 전환하도록 여성의 내면을 재구조화하고자 했던 시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하여 『한중록』에서 혜경궁(惠慶宮 洪氏, 1735-1815)이 친정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며 서술한 대목을 살펴볼 수 있다.15) 혜경궁은 자신

---

14) "且觀世人姑婦之間, 多失其慈孝之心, 此皆爲婦者不識舅姑慈愛之心故也. (…) 爲婦者旣視其舅姑, 不比於生我之父母, 故以此反度舅姑之心, 疑其敎訓責罰, 不出於慈愛而出於督過, 懷忿蓄懟, 愈肆悖逆, 遂使其夫有惑而失其孝, 舅姑有激而損其慈, 一室勃磎, 傷倫賊恩, 此皆婦之罪也. 雖其斥黜, 可勝贖哉."(韓元震, 『南塘集』권26, 「韓氏婦訓」).

15) 혜경궁과 같은 왕실 여성에게 요구된 규범들이 이하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에게도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서 혜경궁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일정한 타당성을 얻는다(한희숙, 「여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교육은 중요했다」, 『조선 여성의 일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2010, 226-228쪽).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닉가 디통(至痛)을 당ᄒᆞ야 강잉(强仍)ᄒᆞ야 세상의 머므러시나 진실노 ᄉᆡᆼ셰지심(生世之心)이 업서 ᄒᆞ니 과(過)ᄒᆞ미 만턴 양ᄒᆞ야 션대왕(先大王)겨오셔 과ᄒᆞ믈 일ᄏᆞᆺᄌᆞ오시고 뎡셩왕후(貞聖王后)겨오셔와 션희궁(宣禧宮)의셔 집상(執喪)이 과ᄒᆞ야 의복지졀(衣服之節)이나 다 네(禮)와 다ᄅᆞ다 ᄭᅮ종ᄒᆞ오시니 내 더옥 네를 다ᄒᆞ지 못ᄒᆞ믈 이통ᄒᆞ더니라."(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한중록』, 문학

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천지간의 혼자인 듯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슬픔을 느꼈으나, 영조가 혜경궁의 슬픔이 과하다고 일컫고 정성왕후와 선희궁 또한 혜경궁의 옷매무새가 예법에서 어긋난다고 꾸중하였다고 기록한다. 이와 같은 시가 구성원들의 간섭 속에서 혜경궁은 자신이 친정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다면서 그 애통함을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여성의 내면이 여성의 효에 관한 규범적 담론과 갈등하는 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혼인 이후 여성이 친정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보이는 슬픔은 일정 정도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교정의 대상이 되며, 여성 자신 또한 시가 구성원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교정 하에서 스스로의 슬픔을 제어하고 조절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바, 효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심청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심청전』에서는 그녀가 혼인 이전의 상태에서 그러한 효성을 발휘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16] 혼인 이전의 여성이 친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지배적 담론에 부합하는 권장사항이지만, 혼인 이후에도 친정부모에 관하여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는 여성이 존재한다면 그 인물은 문제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3장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문제적 여성인물인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네, 2010, 254-255쪽).

16) 관련하여 Jahyun Kim Haboush의 연구에서는, 17세기의 친영제 강화 이후 혼인한 여성들은 친부모에 대한 애정을 시부모에 대한 의무로 바꾸도록 요구받았으나, 대중문학의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반지배적 담론, 예컨대 여성이 가진 친부모에 대한 효의 감성이 불변적이며 강력하다고 제시하는 『심청전』과 같은 작품이 유통되었다고 제시했다(Jahyun Kim Haboush, 「효의 감성과 효의 가치」, 이경하 역,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105-158쪽).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였듯 심청의 경우에는 서사 내에서 결혼 이전에 친부모에 대한 효를 다한 경우이므로, 친영제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최적의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진양공주의 효 수행 양상과 그 의미

『유씨삼대록』은 1권에서 유우성을 중심으로 한 제 1대의 이야기를 다룬 뒤, 1권 후반부에서부터 8권까지는 유세형을 중심으로 한 제 2대의 이야기를, 9권부터 20권까지는 유현을 중심으로 한 제 3대의 이야기를 주로 다룸으로써 삼대록으로서의 구성을 갖춘다. 삼대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 2대가 서사 내에서 "극단적으로 양각"되고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17] 그 가운데에서도 작품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제 2대에 속하는 유세형의 아내, 진양공주이다. 천자의 누이이자 태후의 딸로서 유씨 가문에 하가(下嫁)하는 진양공주는 1권에서 서술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 흔갓 외뫼(外貌) 특이홀분 아니라 현성(賢聖)흔 덕되(德道) 하늘 깃고 신이(神異)흔 아롬이 귀신 깃흐여 흡연이 토계(土階) 우히 극양(克讓)ᄒᆞ던 인덕(仁德)과 남훈뎐(南薰殿) 상(上)의 탄금(彈琴)ᄒᆞ던 셩회(誠孝) 이셔 유하(乳下)를 겨요 면ᄒᆞ므로브터 동〃(洞洞)흔 졍셩과 쵹〃(屬屬)흔 숑슌(承順)으로 뇽누의 근시(近侍)ᄒᆞ여 슈유(須臾)를 써나디 아니ᄒᆞ니 엇디 문왕(文王)의 일삼(日三)ᄒᆞ시믈 족히 귀타ᄒᆞ리오..[18]

진양공주는 처음 소개되는 대목에서부터 뛰어난 외모, 성스러운 도덕, 신이한 예지력 등을 지닌 비범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때 텍스트 내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토계에서 백성을 위하는 덕'이나 '남훈전에서 거문고를 타는 효성' 등은 유교의 대표적 성인(聖人)인 순(舜)임

17) 조용호, 「『劉氏三代錄』의 敍事論的 硏究」,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298쪽.

18) 『유씨삼대록』 권지일, 78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유씨삼대록』의 원문은 이화한국문화연구총서의 『유씨삼대록』에 수록된 원문을 따른다(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4, 소명출판, 2010).

금의 행적이다. 즉 서술자는 진양공주를 순임금에 비견되는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순임금이 지닌 자질들 가운데에서도 어진 덕과 지극한 효성이 중심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후자인 효성에 관해서는 진양공주가 문왕(文王)보다도 뛰어난 점이 있다고 언급된다. 문왕 또한 효성에 관한 한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양공주를 문왕에 비교하기에는 진양공주가 더욱 뛰어나다고까지 서술되는 것이다. 서술자에 의해 진양공주와 격이 맞는 인물로서 제시되는 순임금은 그 효가 천하에 모범이 되어, 단지 일신이나 한 가문의 효에 그치지 않고 천하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맹자(孟子)에 의해 '대효(大孝)'라 일컬어진 인물이다.[19] 일반적으로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순임금의 두 아내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에 비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20] 이러한 진양공주의 인물 설정이 지니는 특이성은 두드러진다.

『유씨삼대록』의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의 효성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서사의 초반에서 유세형은 장혜앵과의 혼담이 오고가던 상황에서 진양공주와 늑혼(勒婚)을 올리게 되자, 진양공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반면 진양공주는 시부모의 뜻에 따라 황실의 화려한 단장을 버리고 검소한 단장으로 바꾸어 입는 등 시가에 순종할 뜻을 밝히며, 천자와 태후에게 청하여 장혜앵을 유세형의 두 번째 정실 처로 들이게까지 한다. 이와 같은 서사의 진행에서 진양공주는 남편을 위하여 태후를 속이는 행위를 스스로 '불효'라고 인지하면서도 행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후 유세형의 박대가 심해지고 신체적 폭력까지 가해지자 결국 유씨 가문을 떠나 황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

19) "舜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 瞽瞍底豫而天下化,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孟子』, 「離婁 上」 28).

20)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 참조.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의 변용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5-40쪽; 박길희,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지향과 교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25-161쪽.

"옥쥐 쇼싱의 무식(無識)ᄒᆞ믈 노(怒)ᄒᆞ샤 인뉸(人倫)을 샤졀ᄒᆞ고 대ᄂᆡ(大內)의 숨고져 ᄒᆞ시니 싱이 비록 무상(無狀)ᄒᆞ나 엇디 붓그러오믈 아디 못ᄒᆞ리잇고. 연(然)이나 부덕(婦德)을 싱각ᄒᆞ샤 쇼싱의 ᄀᆡ과(改過)ᄒᆞ믈 용납ᄒᆞ쇼셔." 공쥐 슈용 졍금(整襟)ᄒᆞ여 듯기를 ᄆᆞᄎᆞ매 졍식 왈, "쳡이 블쵸(不肖)ᄒᆞ나 부마의 말ᄉᆞᆷ을 명심ᄒᆞ려니와 슈연(雖然)이나 궐듕힝도(闕中行道)ᄂᆞᆫ 그치디 못ᄒᆞ리니 타일 허믈을 고쳐 건즐(巾櫛)을 밧들가 ᄒᆞᄂᆞ이다." 셜파의 구고(舅姑)긔 하딕(下直)ᄒᆞ딕 "블쵸ᄒᆞᆫ 아히 슬하(膝下)의 삼년 무휼지은(撫恤之恩)이 호텬망극(昊天罔極)ᄒᆞ오나 만분지일(萬分之一)을 갑숩디 못ᄒᆞ옵고 금일 모후(母后) 여년(餘年)을 뫼시고져 ᄒᆞ와 슬하를 ᄯᅥ나오니 슬프며 황공ᄒᆞ오믈 이긔디 못ᄒᆞᄂᆞ이다."[21]

진양공주의 입궐이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한 유세형은 부녀자로서의 덕을 근거로 입궐을 만류하며 진양공주에게 '유세형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진양공주는 남편의 청을 거절한 뒤, 시부모에게 입궐 의사를 밝히며 그 까닭을 연로한 자신의 친어머니인 태후를 섬기고자 하는 데에서 찾는다. 결국 진양공주는 궁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유씨 가문 내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태후는 진양공주가 본래 지닌 '대효의 행실'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진양공주의 입궐을 받아들인다. 진양공주는 입궐 이후 지극하게 태후를 섬기지만, 그럼에도 입궐의 선택 자체는 유씨 가문 내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2] 요컨대 서사 내에서 태후를 향한 진양공주의 효성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씨 가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입궐을 정당화할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

---

21) 『유씨삼대록』 권지삼, 7쪽.

22) 이는 작중 인물들에게도 일정 부분 의식되고 있다. 시부모인 유우성과 이부인은 진양공주가 입궐한 까닭에 대하여, 태후에 대한 효를 행하고자 함이 대의라면 유세형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여 물욕을 끊은 것이 진양공주의 본의임을 지적하며 유세형을 질책하고 있다(『유씨삼대록』 권지삼, 51쪽).

이러한 진양공주의 선택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핵심으로 삼는 유교의 부덕 담론으로 포섭할 수 없는 바, 실상 진양공주는 효의 수행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일탈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일탈성은 작중 인물들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의식되고 있다. 입궐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며느리인 진양공주를 만나게 된 이부인은 진양공주에게 부도(婦道)를 상기시키며 다시 유씨 가문으로 돌아올 것을 청한다.[23] 이후 서사에서는 이부인의 말에 모골이 송연해진 진양공주가 그 말을 곱씹는 장면이 제시되지만, 이를 계기로 유씨 가문에 귀환하지는 않는다. 즉, 진양공주는 스스로의 입궐이 지니는 일탈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속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진양공주가 혼인 이후 남편과의 별거 기간이 3년이 넘어감에도, 시모의 청을 거절하고 시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유씨삼대록』 내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 일차적으로는 진양공주의 친정이 황가라는 점에서, 『유씨삼대록』에 앞서 공주의 하가 설정을 등장시켰던 『소현성록』과의 비교를 시도해볼 수 있다. 『소현성록』의 명현공주는 혼인 이후에도 황권을 등에 업고 소씨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다가 끝내 시조모와 시부를 욕하는 불순부모(不順父母)의 지경에 이르러 황실의 권력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다.[24] 이를 통해 볼 때 황실이라는 배경을 지녔다고 하여 공주의 일탈적인 행동 모두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현성록』의 명현공주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가 차별화되는 지점은 친정이 황실이라는 배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명현공주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친정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진양공주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정의 배경을 활용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용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당화할

23) 『유씨삼대록』 권지삼, 58쪽.
24)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5-27, 30쪽.

수 있는 '효'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서사 내에서 효의 수행이라는 대의는 진양공주의 입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진양공주는 입궐을 통해 시가와의 거리두기에 성공하면서 행동의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입궐 이후 진양공주는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여 궁궐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여주공의 지위에 오르며, 그밖에도 황제의 정사를 돕는 등의 활약을 보이다가 유씨 가문 내로 복귀한다. 이러한 서사 전개를 통해 볼 때, 『유씨삼대록』은 규범으로부터 일탈적인 성격을 지닌 진양공주의 입궐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서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씨삼대록』 내에서 진양공주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죽음의 시점이 태후의 죽음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태후를 향한 진양공주의 효성은 작품 초반에서부터 일관되게 언급되지만, 8권에서 태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대목에서 특히 강조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진양공주는 천자의 죽음 이후 심약해진 태후를 걱정하여 유씨 가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궁궐에 머무는데, 이에 대해 남편 유세형은 '사사로운 정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유씨 가문으로의 귀환을 독촉한다. 진양공주는 남편의 청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태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궁에 머무르며, 태후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자 천지신령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결국 기도를 위해 마련한 단에서 태후의 주등이 거꾸러진 이후에야 진양공주는 태후의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천명(天命)임을 수용하고, 곧이어 태후가 죽는다.

> 공쥐 셜음으로 녜(禮)를 폐(廢)티 아니ᄒᆞ며 샹이 권위(勸慰)ᄒᆞ시믈 봉슌(奉順)치 아니미 업ᄉᆞ나 심곡(心曲)은 임의 다 ᄉᆞ라뎟더라. (…) 공쥬의 긔식(氣色)이 엄〃(奄奄)ᄒᆞ고 용뫼 환형(幻形)ᄒᆞ믈 보고 구고(舅姑)와 진공이 크게 놀나고 두려ᄒᆞ여 붓드러 침뎐(寢殿)의 드리고뎌 ᄒᆞ니 공쥐 ᄉᆞ양(辭讓) 왈, "태후낭〃 ᄌᆡ궁(梓宮)이 혼뎐(魂殿)의 계시니 진양이 엇디 놉흔 집을 ᄉᆡᆼ각ᄒᆞ리오." 드ᄃᆡ여 좌우로 ᄒᆞ여곰 ᄂᆞ즌 집을 서르저 상막(喪幕)을 ᄇᆡ셜(排設)ᄒᆞ고 거적을 ᄭᆞᆯ며 ᄲᅱ를 베여 궁듕과 궁인의 장속

(裝束)이 빅운(白雲) ᄒᆞᆫ 쎄 되엿더라. 공쥐 최마(衰麻)를 벗디 아니ᄒᆞ고 스시곡읍(四時哭泣)을 ᄒᆞᆫ 즉 셩음이 쳐완(悽惋)ᄒᆞ여 사ᄅᆞᆷ이 ᄎᆞ마 듯디 못ᄒᆞ고 반ᄃᆞ시 긔운이 진ᄒᆞᆫ 후 곡읍을 그치ᄂᆞᆫ디라.[25]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양공주는 태후의 죽음을 지극히 슬퍼하며 유씨 가문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슬픔을 감추지 않는다. 침전에 들라는 남편과 시부모의 청을 거절하면서, 움막을 차려 흰 띠를 두르고 상복을 벗지 않은 채 하루에 한 그릇의 미음만 마시며 하루에 네 번씩 곡하는 예를 이어나간다. 결국 유세형은 상복과 거적에 핏자국이 낭자한 상태에 이른 진양공주를 찾아가서 몸을 보존할 것을 설득한다. 그러나 진양공주는 자신이 일전에 아버지를 여의고도 목숨을 부지한 것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상중의 예법을 이어나간다. 또한 의사의 치료도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던 유세형의 시도를 저지하기까지 한다. 시모인 이부인이 나서서 진양공주에게 태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누르고 회복의 의지를 가질 것을 권하지만, 진양공주는 자신의 죽음이 천명이라고 답할 뿐이다.

앞선 2장의 마지막에서 살펴본 혜경궁의 기록을 상기한다면, 이렇듯 친정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감추지 않는 진양공주의 처신이 규범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 내에서 진양공주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태후의 죽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 발화와는 별개로 작중 인물들은 모두 진양공주의 죽음을 태후의 죽음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작품에서도 진양공주의 죽음은 태후의 죽음과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는 진양공주를 대효의 상징적 인물로 형상화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당대 독자들 또한 진양공주의 죽음을 태후의 죽음과 연관시켜 이해하

25) 『유씨삼대록』 권지팔, 17, 21-22쪽.

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와전』이라는 소설에서 진양공주를 설명하는 대목을 참고할 수 있다. 『여와전』은 여러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한 공간 안에 등장시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한 일종의 2차 창작물인데, 여기에서는 진양공주가 어머니의 상사로 대효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점이 그녀의 뛰어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6] 또한 『한중록』에서 혜경궁이 자신의 여동생과 관련된 기억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유씨삼대록』이 언급된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27] 여기에서 『유씨삼대록』은 혜경궁의 여동생에게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텍스트로 제시되는데, 하필이면 어머니에 관한 기억이 '『유씨삼대록』에 적힌 말의 슬픔'과 결부된 데에는 진양공주가 친모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설정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는 25세에 나이에 요절하고, 유씨 가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전체가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한다. 특히 유세형은 아내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하여 피를 토하고 기절하며 병을 얻는 등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데, 이에 유우성이 아들 유세형의 처신을 꾸짖는다.

---

26) 고전소설의 열혈 독자에 의해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필사 유통되며 20종의 이본으로 현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독자들에게도 일정한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죽기의 니르러 부〃(夫婦) 듕졍(重情)과 ᄌᆞ녀(子女)의 고〃ᄒᆞ믈 관념ᄒᆞ여 구〃ᄒᆞ미 업고 모후(母后)의 샹ᄉᆞ(喪事)를 만나 ᄃᆡ효(大孝)의 몸을 마ᄎᆞ니"(『문창셩탕평요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9-30쪽).

27) "뎡튝(丁丑) 겨울의 션비(先妣) 여힌 후 처엄으로 계데를 ᄃᆞ리고 드러오니 형뎨 만나 셜워ᄒᆞᆫ 일 ᄉᆡᆼ각ᄒᆞ며 말ᄉᆞᆷ이 미ᄎᆞ면 눈물 이러니라. 그ᄯᅴ 드러와 『뉴시삼대록』을 보고 ᄎᆡᆨ(冊) 말의 슬푸물 보고 슬허ᄒᆞ기, 심ᄉᆡ(心事) 약(弱)ᄒᆞ야 그러ᄒᆞᆫ가 일ᄏᆞ랏더니라"(혜경궁 홍씨, 앞의 책, 192쪽 ; 한길연, 앞의 글, 2007, 2-3쪽). 이 대목에 관해 한길연은 『유씨삼대록』이 여느 고전소설에 비해 죽음의 문제를 심도 깊게 형상화한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였으나, 본고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러 죽음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진양공주의 어머니인 태후의 죽음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션군(先君)이 션부인(先夫人)을 빅(配)호샤 은의(恩義) 오륜(五倫)의 ᄀᆞᄌᆞᆨ호시고 우리 모비의 츌군(出群)호시미 엇디 범쇽(凡俗) 부녀의 비(比)호실 배리오마ᄂᆞᆫ 허다 곡경(曲境)이 무수호니 출하리 부인을 져ᄇᆞ리실 디언뎡 효(孝)ᄂᆞᆫ 완젼호시니 노뷔(老父) 이제 싱각호여도 츄모(追慕)호여 눈믈 흐ᄅᆞ믈 씨ᄃᆞᆺ디 못호ᄂᆞ니 션조(先祖)긔 브득지(不得志)호셔ᄂᆞᆫ 념녜(念慮) 부귀와 부〃의 밋디 못호시미라. 고로 션군의 놉흔 덕(德)과 큰 효힝(孝行)이 듕화(中華) 후(後) 호나히시니 네 아비 블쵸(不肖)호여 능히 일만(一萬)의 호나흘 효측(效則)디 못호나 샹시(常時) 너히 무리 힝혀 나믄 혈믹(血脈)을 니을가 ᄇᆞ라더니 네 이제 공쥬의 망(亡)호미 참담(慘憺) 통셕(痛惜)호여 심상(尋常)ᄒᆞᆫ 부〃와 ᄀᆞᆺ디 못호나 엇디 병을 니ᄅᆞ혀 이에 니ᄅᆞᆯ 줄 알니오. 부ᄌᆞ(父子)의 졍이 상명(喪明)호기의 니ᄅᆞ믄 족히 ᄒᆞᆫ(恨)ᄒᆞᆯ 배 업거니와 션군의 대효(大孝)로써 그 ᄌᆞ손(子孫)이 어버이ᄅᆞᆯ ᄇᆞ리고 안해ᄅᆞᆯ ᄯᆞᆯ와 죽은 아히 이시믈 더옥 붓그리고 슬허호노라."[28]

여기에서 유우성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유세형의 할아버지인 유연의 행적을 들며 유세형을 꾸짖는데, 유연의 효행은 『유씨삼대록』의 전작인 『유효공선행록』에서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은 아내를 저버리더라도 친부에 대한 효성을 실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며, 유연의 아내 정부인은 남편의 효심을 이해하고 이에 부수(附隨)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서술자에 의해 순임금에 비견되기도 하는 유연은 작품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친부의 죽음에 따른 극도의 슬픔으로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대효의 상징적 인물로 등극하고, 정부인 또한 남편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유효공선행록』의 서사를 상기한다면, 작품 초반에서부터 진양공주를 순임금에 비견하는 인물로 제시하는 『유씨삼대록』이 전편의 설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역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씨삼대록』에서는 대

28) 『유씨삼대록』 권지팔, 87-89쪽.

효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진양공주라는 여성인물이며, 심지어 진양공주가 효를 수행하는 대상은 친모이다. 또한 『유효공선행록』에서 정부인이 유연의 죽음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말이었던 것과 달리, 『유씨삼대록』에서 유세형이 진양공주의 죽음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비례(非禮)로 인식된다. 따라서 위의 인용 대목에서 확인되듯이 유우성을 비롯한 유씨 가문의 구성원들은 유세형이 죽음에 이르게 두지 않으며, 결국 유세형은 작품의 마지막권인 20권에 이르러 친부모의 시묘를 마친 뒤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진양공주가 대효의 주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균열은 남편인 유세형으로 하여금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며 유씨 가문을 건사하게 함으로써 봉합되고, 이에 따라 8권에서의 진양공주의 죽음 이후로도 20권까지 유씨 가문의 서사가 이어지게 된다. 진양공주는 두 통의 편지를 남겨둠으로써 사후에도 유씨 가문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후 가문 내 구성원들에 의해 유씨 가문의 영달을 가능하게 해준 구심점적인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호출되며 기억된다.[29] 유씨 가문의 번영을 그리는 서사 속에서 생전의 진양공주가 보인 일탈적 행동은 일탈이 아닌 것으로 미화하고 정당화된다.

요컨대,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는 유교에서 여성에게 부과하는 규범적 담론을 일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유교의 대의를 활용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시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가의 영달에 기여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 서사 내에서 진양공주가 수행하는 효는 단순히 부모를 향한 자식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유되는 일종의 정치적 자원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친정의 배경을 명민하게 이용하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주공의 지위를 획득하는 진양공주는 자신이 수행하는 효 또한 자원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인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씨

29) 다음의 대목 참고. 『유씨삼대록』 권지구, 41-42쪽 ; 『유씨삼대록』 권지십, 54-55쪽 ; 『유씨삼대록』 권지십구, 6-7쪽.

삼대록』에 나타나는 진양공주의 효 수행은 지배담론으로의 종속이나 지배담론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틀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4. 결론

여성의 효에 관한 유교의 규범적 담론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을 기점으로 친부모를 향하던 효성을 시부모에게로 돌리도록 기대된다. 『삼강행실도』에는 이러한 효의 수행 대상 전환이 자연화 되어 나타나지만, 『내훈』에는 안정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으며, 『우암선생계녀서』·「한씨부훈」 등의 규훈서에 이르게 되면 해당 전환에 관한 여성들 자신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혼인 이후에도 친모에 대한 효를 다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효에 관한 규범적 담론을 일탈하는 인물로서 주목되는 사례이다. 진양공주가 수행하는 효에 관하여 본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양공주는 작품 초반에서부터 서술자에 의해 순임금과 비견될 정도로 그 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유씨삼대록』의 전작 『유효공선행록』에서 진양공주의 시조부에 해당하는 유연이 순임금에 비견되었던 것, 그리고 여타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순임금의 두 아내인 아황과 여영에 비견되었던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당대 독자들에게도 진양공주의 친모에 대한 효성이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인물이 수행하는 효의 문제적 성격은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양공주는 혼인 이후 친모에 대한 효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친정인 궁으로 복귀하는데, 이때 진양공주가 입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효의 수행은 남편 유세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진양공주의 효 수행은 시부모가 아닌 친정부모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효 수행에 관한 규범적 담론과 상충한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는 이러한 상충이 부각되는 대신 효 수행을 구실로 진양공주가 확보하는 자율성이 긍정적으로 부각되며, 이렇게 확보한 자율성 위에서 진양공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해내는 여주공의 지위와 그 명예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진양공주는 친모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슬픔을 자제하지 않으며 시가 구성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죽음 직후 스스로도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대효의 상징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진양공주가 대효의 주체가 됨으로써 발생한 균열은 유세형으로 하여금 유씨 가문을 건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봉합되며, 이후 전개되는 서사는 유씨 가문의 영달과 진양공주를 지속적으로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진양공주의 행적을 일탈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끔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작품 내에 재현된 진양공주의 효 수행은 규범의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참고문헌

1. 자료

『南塘集』, 『韓國文集叢刊』.

소혜왕후, 『내훈』, 이경하 주해, 한길사, 2011.

『문창셩탕평요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삼강행실도 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주희・유청지 엮음, 『소학』, 윤호창 역, 홍익출판, 2005.

송시열, 『우암션싱계녀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유씨삼대록』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길연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유효공선행록』, 규장각 소장본, 정병설・조태영 주석, 1995.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주석, 문학동네, 2010.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 단행본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20-48쪽.
한희숙, 「여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교육은 중요했다」, 『조선 여성의 일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2010, 214-241쪽.

3. 논문
권내현, 「조선후기 부계 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보』 62, 고려사학회, 2016, 247-268쪽.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東洋古典硏究』 25, 東洋古典學會, 2006, 285-288쪽.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의 변용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5-40쪽.
박길희,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지향과 교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25-161쪽.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5쪽.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古典文學硏究』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87-220쪽.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71-199쪽.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133-173쪽.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조용호, 「『劉氏三代錄』의 敍事論的 硏究」,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

학회, 1995, 289-316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韓國文化』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1-30쪽.
홍인숙,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尤庵 宋時烈」, 『동양고전연구』 18, 동양고전학회, 2003, 103-140쪽.
Haboush, Jahyun Kim, 「효의 감성과 효의 가치」, 이경하 역, 『국문학연구』13, 국문학회, 2005, 105-158쪽.

Abstract

Analysis of the Great Filial Piety of the Female Character in *Yussisamdaerok*

Jeon, Ki-hwa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female character in *Yussisamdaerok* who represents the great filial piety. According to Confucian discourses on women's filiality, women were expected to transfer their filial piety from their natal parents to their parents-in-law after marriage. However, the eighteenth century novel *Yussisamdaerok* introduced a fictional character, Princess Jinyang, who continues to direct her filial piety toward her natural mother, rather than her parents-in-law, even after she marries. This study focuses on this case and analyzes the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this character in Korean literature.

This analysis of Princess Jinyang's character challenges the former understanding that devoted daughter characters usually represent a woman's natural filiality that cannot be redirected, not even to abide by Confucian norms. Instead, an examination of how Princess Jinyang continues to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her natural mother indicates there are diverse meanings of her noncompliance. For example, Princess Jinyang uses the Confucian virtue of filial piety as her political resource. Although she deviates from Confucian norms of the female virtue, she justifies her behavior with Confucian causes (i.e., filial piety), and by maintaining filial piety toward her natural mother, she gains

autonomy from her husband's family.

Accordingly, Princess Jinyang is not just another case of a devoted daughter character in Korean literature. Rather, the representation of this character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male character and Confucian ideology can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dichotomy of resistance versus subordination.

Key words : late Joseon Korea, filial piety, devoted daughter, devoted daughter-in-law, *Yussisamdaerok*, representation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